

체험 수기

# 작은 몸짓으로 나누는 기쁨

변하지 않는 오랜 친구처럼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환자들에게 다가서서 일하는  
여러 선배, 동료 간호사들의 건투를 빌며.....

**우리**는 저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합니다. 잘 사는 게 어떤 것인가 막연하지만 재산, 명예보다는 건강이 제일 우선이라고들 하지요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보건 의료계의 현실이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에서도 가톨릭 이념에 따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영적, 경제적, 사회적 지지를 위하여, 교회와 의료기관이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고려해 가정을 찾아가는 본당연계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천동 본당에서 가정방문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에게 간호와 함께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가정간호에 대한 홍보 및 인



김 경 숙(리드비나)  
가정전문 간호사(신천동)

식, 지식의 부족과 가정간호사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를 통해 가정간호의 필요성을 인정받았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호응을 받아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는 환자나 가족이 직접 가정간호를 받기위해 찾아오는 역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가정간호사가 집에 오니까 너무나도 좋다고 합니다. 편리하고 마음도 놓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 느끼고 감사함도 느낀다며 병원과 직접 비교하기도 하지만, 가정간호사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투약 처방을 받기 위해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 병원방문도 편안히 해결하려고 가정간호사를 찾고, 식사를 잘 못하시거나 입맛이 없을 때는 즉시 와서 조치해 주길 바라는 등 편안함 속에서 더욱 편안해 지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여 때론 안타깝기도 합니다.

반면, 재가환자의 과거와 현재가 조금씩 달

라져, 환자와 가족의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증진될 때 잔잔한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무남독녀 외딸과 사위와 함께 사시는 여든네 살의 고혈압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조기치매, 뇌기능 이상으로 3년 동안 의식 없는 상태로 집에 누워 있는 딸(67세)과, 당뇨병, 뇌졸중으로 퇴원하여 지속적으로 가정간호를 받다가 다시 재발하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사위(68세)를 두고 계신 분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할머니께서 피곤해 하고 기운 없어 하시기에 고혈압 아닌 다른 어딘가 불편하신 것 같아 자세히 여쭙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말라 버린 입술을 천천히 물잔에 적시며 한참을 망설이시다 '자주 아랫배가 불편하고 묵적지근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진찰해보니 아랫배에 계란 크기의 단단하고 둥근 덩어리가 만져지더군요.

당신은 살만큼 살았고, 딸과 사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시며, 젊은 사람이 두 명이나 병중에 있는데 나이도 더 많은 당신이 또 다른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것도 귀찮고 창피하다며 치료를 거절하셨습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할머니를 설득하여, 대학병원에서 신장에 있는 물 혹(6×9cm 크기)을 수술 받게 하였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가정전문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수술도 늦어지고 물 혹 발견도 더디었을 거라시며 만날 때마다 할머니께선 제 작은 가슴에 안기십니다. 인천동 성당 가정전문 간호사 덕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제 두 손을 꼭 붙잡고 놓을 줄 모르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따뜻함으로 전해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사시는 할머니를 위해 동사무소에 연결하여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가정전문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수술도 늦어지고  
물 혹 발견도  
더디었을 거라시며  
만날 때마다  
할머니께선  
제 작은 가슴에  
안기십니다.

재치 있는 언변은 없어도 만나는 환자분들을 위해 만들어내는 저의 어설픈 빗깔과 무늬가, 동트는 새벽이건 일몰의 저녁이건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보내는 저의 작은 몸짓이, 치료나 위료가 필요한 분들의 마음의 평화와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간호는 동료나 상급자 없이 혼자 단독으로 모든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 상황에서 대상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업무상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의사와의 공조체계 형성 시의 어려움, 대상자의 고통에 즉각적으로 중재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타까움, 생명 연장에 대한 윤리적 문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의사에게 보고하고 처방을 받아야 할 경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실제 근무 중인 선생님들께서 겪는 일입니다. 또한 환자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운전해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도로 환경상 주차의 어려움,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 지리를 모르는 환자의 집 찾기, 의료 사고 등이 종종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2년 조금 넘긴 상황에서 성급한 생각일지 모르나, 제가 감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현 가정간호의 향후 추진과제로 ① 가정간호용 의료 장비·용품의 개발 ② 고가의 의료장비 대역 서비스 확대 ③ 미래의 더 큰 치료비용 부담을 사전 절감하기 위해 저소득·취약계층의 공적 재원 마련 ④ 잦은 가정방문이 요구되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가정간호수가 체계 개발이 필요합니다.

강남성모병원 본당 가정간호 공동체의 작은 몸짓으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절망과 혼란에 빠졌을 때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